

전남대·조선대 총장 선거 갈등 새국면

조선대, 이사회 공모 후보 9명 보이콧...1명만 등록

강현욱 이사장 “단독후보론 선거 어려워” 재협의를 시사

전남대 지병문 총장 “간선제 위한 학칙 개정” 충돌 예고

조선대 총장 선거가 공모 마감(18일)을 계기로 법인 이사회와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지치운영협의회(대자협)간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사회의 총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강현욱 이사장이 단독 응모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다.

전남대도 지병문 총장이 교수들간 세미나에서 ‘독자적 간선제를 통한 총장 선출 방식’을 발의하겠다고 공시 선언하면서 향후 교수들과의 극심한 2라운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강현욱 이사장, ‘재협의’ 거론해 주목 = 강현욱 이사장은 17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만 (총장 초빙) 공모에 응

할 경우 그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학 교수평의회는 앞서 총장 임후보 예정자들에게 이사회의 총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9명의 예정자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 명의 후보가 단독으로 총장 공모에 응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 절차를 (대자협 등과) 재협의해야 하지 않겠나”는 뜻도 밝혔다. 그는 “파국으로 가면 되겠다. 더 협의를 해야죠”라고도 했다. 학교 안팎에서는 이사회의 총장 후보자 공모 강행으로 촉발된 대학 구성원들과의 대대강(強對強) 대립·갈등에 변화가 예상되는 발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총장후보자로 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는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 후보 공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갈등 사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조선대 이사회와 대자협간 대립 속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총동창회 등의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전남대, ‘독자적 간선제’ 제시=17일 전남대 교수회(회장 김영철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에 따르면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목포에서 열린 교수회 평의회 세미나 중 ‘총장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간선제로 총장을 뽑기 위한 별도 규정을 마련,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총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학칙 개정안’과 관련, “재논의”를 요청하던 기존 입장에서 나아가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게 일반

적 반응이다.

지 총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총장 발의 형태로 ‘독자적 간선제 선출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대학 구성원간 합의로 간선제 방안을 도출하는 게 아닌, 총장과 대학본부가 중심이 돼 독자적 간선제 방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988년 전국 최초로 직선제 투표를 실시한 전남대의 역사성과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을 임명한 교육부의 결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재경난 타개를 위한 정부의 재정사업 수주에만 관심을 기울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대 교수회측은 “대학본부가 이번 주 독자적 간선제 선출 방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할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교수평의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진경준 현직 검사장 첫 구속

주식 대박 수사...법무장관·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 검사장은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

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에 결정했다.

한편 김현용 법무부 장관은 사상 초유의 진 검사장 수리 사건과 관련해 17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18일 오후 2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진 검사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힐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아내 살해 잠적 60대 1년 9개월만에 검거

아내를 살해하고 잠적했던 60대 남성 이 도피 1년9개월 만에 경찰의 공개수배를 통해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17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60)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10월16일 오전 6시30분경 광주 서구 금호동 자택의 아파트에서 아내 노모(당시 5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화장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신고 전화를 걸어 병사로 위장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그는 경찰이 시신에서 명 자국을 발견하고 노씨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유씨 측에 통보하자 다음날 정례식 도중에 행

방을 감추고 달아났다. 유씨의 차량과 휴대전화, 지갑 등 소지품은 그가 총격 후 감춘 다음날 지리산 성삼재 인근과 남원의 식당에서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노씨의 사인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지자 유씨를 살인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나섰다. 사건 직후 지리산 일원 등을 탐문하고 이후로도 통신 수사, 계좌 및 진료내역 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유씨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달 1일 중요지명피의자로 전환된 유씨는 공개수배 2주만인 지난 15일 오전 남원의 한 직업소개소 앞에서 시민 제보로 잠복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김형희기자 khh@kwangju.co.kr

천주교 광주 정평위 언론통제 항의 1인 시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가 언론통제로 물의를 빚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언론의 각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KBS 앞에서 진행한다.

이번 시위는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이 정오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KBS측에 보도 자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의원은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

라는 전화를 두차례 했고 지난 6월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

정평위 측은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국민은 어둠속에서 살 것이라 했다”며 “국민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와 권력의 시녀가 되어가는 공영언론의 모습을 좌시할 수 없기에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중복분양 사기 은닉자금 찾아내라” 광주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피해자 100여명이 지난 16일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은닉자금 찾아내 피해보상 이행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진농협 수수료 챙기려다...지급보증 빛 8억 떠안아 신용대출 7억원도 폐일 위기

강진농협이 담보도 없이 특정 법인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썼다가 수억원의 빛을 떠안게 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이 법인과 대표자에게 수억원의 신용대출까지 해줬다가 폐일 처지에 놓인 사실마저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강진농협에 따르면 전임 김근진 조합장 시절인 지난해 1월 돼지유통업체인 K사와 거래 중이던 농업법인 B사에 대해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 간 거래 대

금의 0.15%의 수수료를 강진농협이 챙기고 B사가 K사에 돼지 거래 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농협 측이 지급 보증한다는 내용이였다. 이 과정에서 B사가 K사로부터 돼지를 넘겨받고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대금 7억3900만원을 입금하지 않자 K사는 강진농협에 상환을 요구했고, 농협 측이 갚지 않자 K사는 강진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올 1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K사는 상환 원금에다 이자 및 소송 비

용을 더해 총 8억여원을 갚지 않으면 강진농협 자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임 조합장 시절 강진농협이 B사에 담보대출 15억원, 신용대출 6억원, 대표자 명의 신용대출 1억원 등 총 22억원의 추가 대출이 이뤄졌고, 이 중 7억원의 업체 측 경영악화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육태 강진농협 조합장은 “전임 조합장은

지난 2월 새로 취임한 나에게 업무 인계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면서 “문제가 된 8억원을 우선 농협이 갖고 김 전 조합장 등 전임 이사진 20여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 전 조합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지만 B사는 강진농협과 10년 넘게 거래해왔다. 내가 유지한 사업자도 아니고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모른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호텔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물들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의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지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 대지 328평, 33세대중 1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2016년 8월말 완공 예정 매매 - 1억 6천만원

▶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문화마을, 128평, 코너 계획관리지역, 위치좋은 36세대중 20세대 거주 매매 - 83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무인텔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콘도겸용)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장기투자 최적!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용자 - 5억 정도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